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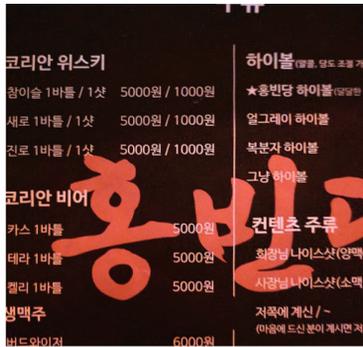
# “과음 예방 하고 여러 종류 술 맛 볼 수 있어 좋아요”

잔술 판매 합법화 첫 주말 광주 동명동 판매주점 둘러보니

소주 한잔 1000원 전통 청주 8000원...메뉴판 두가지 가격표  
주점 곳곳 “여기 1잔이요” 주문 목소리...업주들도 “매출에 도움”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잔술’을 주문할 수 있어 좋아요. 과음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술을 맛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9시께 찾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주점. 주점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종업원이 건넨 메뉴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 곳에서는 3가지 종류의 소주를 판매 중이었는데, 각 소주마다 ‘1병 5000원 / 1잔 1000원’이라는 두 가지 가격표가 적혀 있었다. 점원에게 소주 잔술 1잔을 주문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소주잔에 소주가 가득 담겨 나왔다. 360ml 들어 소주 한 병이면 7.5잔을 채울 수 있는데, 한 병을 모두 마실 경우와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 손해이

지만 주점 곳곳에서는 “00소주 1잔이요”라는 손님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만난 손님 A(여·31)씨는 “메뉴판에 잔술이 있길래 흥미로워, 주문해 봤다”며 “주량이 소주 2잔 정도인데, 굳이 5000원짜리 한 병을 주문하고, 남기지 않아도 돼 좋다”고 웃어 보였다. 주점 운영자 배모(33)씨는 “소주와 맥주 한 병 가격이 5000원 이상으로 비싸지면서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며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저가 식당’, ‘트렌디한 식당’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모든 술을 잔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첫 주말, ‘잔술’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주점 메뉴판. 소주를 1잔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주점이 일대에서 속속 목격됐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술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는데, 호기심에 잔술을 주문하는 시민들은 물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주들도 바쁜 술 문화를 빠르게 영업에 접목해 마케팅에 나서면서 매출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명동 일대 주점가를 살펴본 결과, 잔술을 판매하는 곳은 4곳으로, 아직까지 동명동 주점가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은 모양새였다. 그러나 잔술 영업에 나선 주점과 이들 주점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찾은 인근의 또 다른 주점에서는 소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국산 증류주를 잔술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주 위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한 병에 2만5000원-3만원짜리 전통주를 한 잔에 7000-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주점 업주 양모(36)씨는 “기존에도 암암리에 전통주, 사계, 동동주 등의 주종은 잔술로 파는 경우도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주종 별 잔술 판매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기준도 모호했는데 최근 정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는 잔술 인증샷을, 업주들도 잔술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양씨는 “고가의 전통주 잔술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에 달하는데, 가게를 처음 찾은 손님들은 전통주 가격이 부담스러워 주문을 꺼렸다. 잔술 판매가 시작되자 찾는 이들이 늘었다”며 “잔술로 한 병을 소진할 경우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잔술 판매 매장 내에서는 잔술을 주문해 놓고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하는 20-30대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손님은 “잔술 판매 소식을 듣고 재빨리 잔술 판매 주점을 찾아 친구들과 인증샷을 찍으러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술을 잔술로 파는 곳을 찾아 인증샷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zang@

## 광주은행 가입 즉시 이자 주는 ‘이자먼저Wa예금’ 출시

단기자금 관리 효율적 상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예금 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먼저 주는 ‘이자먼저Wa예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자먼저Wa예금’ 가입 기간은 3개월, 6개월로 단기자금 관리에 효율적인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3개월과 6개월이 각각 연 3.25%, 연 3.27%다. 이자는 상품 가입 즉시 연동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선입금되며, 세금은 예금해지 시 원금에서 원천징수된다. 가입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 와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계좌 개수 제한 없이 고객별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이자먼저Wa예금’이 가입과 동시에 만기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 선지급된 이자로 생활비 사용 또는 재투자 등이 가능해 자금 운용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춘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상품 가입 시점에 이자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이자를 더 능동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제테크적 요소가 가



미된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 기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 3개월 연속 하락

6월 78.5...전월보다 3.5P 하락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5로 전월(82)보다 3.5p 하락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는 올 3월 85.8를 기록한 후 4월(82.6)과 5월(82.0), 그리고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광주는 72.8로 전월보다 2.9p, 전남은 83.8로 4.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들의 경기전망이 크게 나빠졌다. 제조업 분야의 6월 SBHI는 전월(84.3)보다 6.9p 하락한 77.4였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9.5→78.0)와 수출전망(92.3→85.9), 경상이익(77.6→74.2), 자금사정(76.0→73.7) 등 모든 부문에서 전월보다 하락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3.8→94.5) 또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역 중소기업들의 주된 경영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이 54.1%로 가장 많았고, 내수부진(47.8%), 업체 간 과다경쟁(33%)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체들의 우울한 경기전망을 반영하듯, 올 4월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평균 가동율은 70.8%로 전월(71.8%)보다 1%p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노란우산 가입자 포터 EV 구매시 할인 혜택”

중기중앙회, 현대차와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전기자동차(EV) 신차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액화석유가스(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1에서는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10만 오렌지 포인트와 결제금액 천원당 30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를 제공한다. 특별 할인은 다음 달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된다. 차량 구매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t(톤) 다절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되며 이뤄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최고 세율 5.0% 대신 2.7%로 전면적 폐지는 중장기적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정’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

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지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떨떨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 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가격 부담 낮춘 ‘비스포크 스티م’ 온라인 출시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라인업을 확대해 온라인 전용 제품인 ‘비스포크 스티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비스포크 스티م은 ‘비스포크 AI 스티م’의 스티밍 청정스테이션과 청소 성능은 유지하면서 사물 인식 기능에 차별점을 뒤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활용되는 장애물 감지·범퍼 센서로 전방 장애물을 감지해 청소한다. 기존 ‘비스포크 제트 붓’ 센서보다 79% 넓은 면적을 감지해 집 안의 구조와 크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마룻바닥, 카펫 등 바닥 환경을 구분해 상황에



맞게 청소하는 AI 바닥 인식 기능은 유지했다. 고온 물결레 세척, 물결레 스티밍 살균, 열풍 물결레 건조 등 비스포크 AI 스티밍의 물결레 관리 기능도 적용했다. 비스포크 스티م은 3일부터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무협 “지난해 경제성장률 86%, 수출이 이끌어”

전체 취업자 17%, 수출과 연관 생산 유발액 ‘자동차>반도체’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수출이 80% 이상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작년 수출을 통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펴낸 ‘2023년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작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17%포인트로, 지난해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수출이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에 달했다. 수출의 생산 유발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작년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품목별 생산 유발액은 자동차가 2313억달러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1434억달러), 기초화학물질(774억달러), 석탄 및 석유제품(76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도 64.6%로 2022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한국의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지만, 작년에는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659억달러로 반도체(622억달러)를 상회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취업자 2842만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취업자는 483만명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수출 100만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은 7.6명으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2년의 7.3명을 넘어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순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Rows show lottery results for various prize tiers.